

2003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빈의 경제사상에 대한 연구

2003년 12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M. Div) 전공

이 기 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빈의 경제사상에 대한 연구


2003년 12월 일

지도교수 이 은 선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기 현

이기현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 은석  Eun Seok Lee

審査委員 김민희  Kim Min Hee

審査委員 정연익  Jeong Yeon Ik

審査委員 이은성  Eun Seong Lee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3 년 12 월

차 례

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동향 및 연구범위	3
II. 중세시대의 경제적 배경	6
A. 로마 카톨릭과 봉건제도	6
B. 중세도시와 상공업의 발달	9
III. 칼빈의 신학사상에 나타난 경제관 및 칼빈시대의 배경	11
A. 칼빈의 신학사상에 나타난 경제관	11
B. 사회, 경제적인 배경	16
IV. 칼빈의 사회, 정치적인 참여	19
A. 집사직	19
B. 구제기관들과 피난민들	21
C. 사치금지법	24

V. 칼빈의 경제사상	27
A. 고리대금업	27
B. 노동	29
C. 임금	31
D. 상업	33
VI. 칼빈주의가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	35
A. 칼빈과 칼빈주의에 관계에 대한 규명	35
B.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성에 대한 시각	37
VII. 결론	44
참고 문헌	47

칼빈의 경제사상에 대한 연구

I.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와 교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너무나 궁색하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한계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에 대한 아주 완벽하고 철저한 해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제반의 문제들에 대하여 기독교 중심적인 가치관을 제시해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삶의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며, 윤리적으로 해석하면서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전 우주적인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기독교와 교회는 삶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이 경제와 물질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참여하며 해석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사회참여의 의미가 있다.

사회참여는 이제 어느 시민단체나, 봉사단체, 등등의 특수적인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태도와 의식, 행동, 등을 가지고 기독교와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이 땅의 실천적 사역이다.

사회참여의 당위성을 우리가 동의하고 인식했다면 어떤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된다. 우리가 그 해답을 역사의 한 시대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했던 존 칼빈의 삶과 그의 사상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역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파악하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가지 추구해야할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과거의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기독교가 이 시대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수세기 전에 고민하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구체화 해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는 알프스의 조그만 자유도시 제네바라는 곳에서 자신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투영하며 신학사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개혁가로서 사회, 경제, 정치, 교회, 전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었다. 칼빈의 대한 연구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과거의 기독교

교 개혁가가 삶 속에서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논문은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칼빈의 삶과 사상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과연 그가 그 시대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의식과 행동을 하였는가? 그 삶 속에서의 경제적인 사회참여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경제적인 개념과 이에 연관된 사회참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미있게 살펴 볼 안목이 요구되어 지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경제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제사상이나 이에 뒤따르는 사회참여의 관념에 대한 이해를 충족하고 발견한다면 아주 의미있는 연구라고 여겨진다.

B. 연구동향 및 연구범위

지금까지 칼빈의 경제사상에 대한 저서나, 연구논문은 정치사상, 교육사상, 신학사상 등과 같이 동, 서양의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던 분야이다. 서양의 학자인 앙드레 비엘러 (Andre Bieler)는 경제사상의 분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칼빈의 경제사상에 대한 연구영역을 이루었던 사람이다. 즉 그의 사상에서 칼빈의 경제사상을 인격주의적이며 기독교적사회주의로 보고 있다. 1) 로날드 윌래스(Ronald S. Wallace)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1)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trans. Paul T. Fuhrman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p.61-62.

있듯이 종교개혁가, 목회자, 신학자 등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다루면서 칼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즉 어느 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종교개혁가로서의 모습으로 개혁가로서의 그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으며 때로는 목회자로서의 성경말씀 속에서의 영혼의 치료자의 모습을 조명하기도 하였다. 물론 우리가 칼빈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인식에 형태의 하나인 신학자로서의 신학사상에 대한 언급은 빠질 수 없는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레드 그레함(W. Fred Graham)은 개혁가로서의 모습을 강조하였는데 단순히 그 당시의 종교개혁으로서의 한명의 개혁가의 모습으로가 아닌 제네바라는 도시의 전반적인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은 실제적인 개혁가로서의 모습을 주장하였다. 2)

국내의 학자들 중에는 이종성 교수의 칼빈의 대한 연구³⁾를 시작으로 이양호 교수의 『칼빈의 생애와 사상』,은 칼빈에 대해 저술하고 있다. 또한 이은선 교수는 그의 논문을 통해 사회, 경제사상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해 놓고 있다. 4)

위와 같이 국내외 학자들을 통해서 칼빈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언급되어졌고 특히 경제사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 시각이 칼빈의 사회참여에 대한 시각으로 다루어진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지

2) 칼빈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특별히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자는 앙드레 비엘러 (Andre Bieler)이며 프레드 그레함(W. Fred Graham)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칼빈의 경제사상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레함은 그의 원저서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pp.5-21.에서 특별히 서론부분에서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의 사회와 경제의 영향력과 개혁적인 모습과 관련하여 “혁명적인 사상가,” 또는 “혁명적인 지도자”라는 표현으로 그의 주장하는 논조를 대신하고 있다.

3)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p.158-185.

4) 이은선, “칼빈의 사회, 경제사상 연구”,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5), pp.1-30.

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칼빈의 본 글에서의 연구 범위는 칼빈의 있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여러 분야 속에서도 그의 경제사상에 대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즉 칼빈의 경제사상에 대한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의미, 그의 신학사상에 나타나는 경제사상과의 관계성, 삶 속에서의 사회참여, 구체적인 경제개념 용어, 및 더 나아가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영향과 관계성 등을 중심으로 고찰 해 볼 것이다.

위와 같이 칼빈의 경제사상을 연구함으로써 이 시대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사회참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본 글의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II. 중세시대의 경제적 배경

A. 로마카톨릭과 봉건제도

칼빈 이전의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 속에서의 경제적인 배경에는 수도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수도원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많은 수도원들이 수도사들의 노동에 의해 경작된 토지 위에 설립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농작지가 급격하게 증대되었고 육체노동을 천한 것이라고 멸시했던 사회 속에서 수도원은 뛰어난 지성과 영적인 수도생활이 노동과 종합될 수 있음을 제시해 주었다.⁵⁾

청빈과 노동의 신성함을 여겼던 수도원은 그 건축되어짐에 있어서도 가능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형태로 건축되었으며 방앗간과 제방소를 설치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⁶⁾

특히 중세 수도원 운동은 베네딕트에 의해 조직적인 수도원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베네딕트가 세운 규칙에는 노동에 대한 중요한 규율과 입장을 명시해 놓고 있었다. 이러한 운동은 전 유럽에 퍼져 결국 중세 수도원이 부흥하였으며 8세기 카롤링거 왕조 때는 절정을 이루었으며, 이 시기에 수도원은 엘리트 단체로 중세문화의 종교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⁷⁾

한편 중세 시대에 많은 토지와 농노, 재산 등은 수도원과 더불어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

5) Justo L. Gonzalez,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The Story of Christianity*), (서울: 도서출판은성, 1995), p.30.

6) 심창섭, 채천석 편저, 『원 자료 중심의 중세 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8), p.161.

7) Ibid., p154.

의 재산과 토지를 교회에 헌납함으로써 수도원과 함께 로마교회는 오랜 시간 그 재산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8)

하지만 청빈과 노동을 중시하고 구도의 길을 규율로 삼았던 수도원은 토지와 재산의 소유로 오히려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많은 재산의 축적과 증가로 인해 그 수도원과 로마교회는 모든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일체의 육체 노동을 하지 않은 채 모든 시간을 오로지 성무 일과에 바칠 수 있을 정도였다. 즉 수도사들의 경건한 생활에 감동하여 부자와 빈민의 차별 없이 많은 이들이 수도원에 금품을 헌납하였고 이에 축적된 재산은 어떤 수도원 등은 예배당을 황금과 보석으로 꾸밀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결과로 베네딕트의 이상 가운데 하나였던 청빈하고 노동을 중시했던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부패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9)

샤를마뉴 대제의 사후(814) 제국은 분열하고 되고 이러한 내부의 분열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제국은 더욱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제국은 온전하게 제국내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지 못했으며 이에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은 강하고 부유한 자들의 보호와 도움아래 들어가야 했고 그 보호의 대가로 백성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중세유럽의 사회의 근본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봉건제도가 발생하게 된다. 10)

봉건제도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그 당시의 문서인 봉건 추천서와 수도원의 토지 기증서의 내용의 문서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위대하신 나의 주인께,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먹고 입기 위해 아무 것도 가

8) Ibid., p.70.

9) 유스토 곤잘레스, op. cit., p.96-97.

10) 심창섭, 채천석 편저, op. cit., p.69.

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와서 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 자신을 천거하여 당신의 보호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면, 나는 살아 있는 한 당신을 위한 봉사를 행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의 권세와 보호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 생명을 온전히 당신의 권세와 보호 아래 둘 것입니다. 만약 당신과 나 둘 중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조를 깨뜨린다면, 그는 배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이 편지에 서명한 두 장의 복사본을 만들어 지니고, 이를 시행할 것을 동의합니다.”¹¹⁾

“나와 아내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증거서를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존경하는 수도원장이 관장하시는(.....에 세워진) 수도원의 권세에 위탁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모든 땅, 집, 건물들, 소작인들, 노예들, 포도원, 나무들, 목초지, 개울 등 그 거처지의 모든 동산이나 부동산을 수도원에 기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호 하에 그 수도원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사들의 보호와 유지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은, 우리가 수도원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나 가치의 축소 없이, 그곳을 소유하고 있는 조건으로 이를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부부를 위해 그 땅에 거주했던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은 예외로 할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죽은 후에 앞서 말한 곳은 명시한 수도원과 수도원장, 그리고 그 계승자들의 소유로 즉시 귀속될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재판의 과정이나 상속자들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¹²⁾

이와 같이 유력한 국왕이나 영주는 자신의 측근 부하에게 토지를 처음에는 종신재산으로 배당했지만 나중에는 세습재산으로 만들었다. 세습영토를 배당 받은 자들은 군에 복무할 의무가 주어졌다. 토지를 경작한 사람은 여전히 소농민이나, 농도였지만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지배자(국왕, 영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었다. 이렇게 배당된 토지를 봉토라고 하고 ,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제도가 봉건제도와 장원제도라고 한다.¹³⁾

11) Ibid., pp.72.

12) Ibid., pp.72-78.

13) 정성현, 『교양경제사』 (서울: 도서출판 청년사, 1991), p.181-182.

봉건 국왕과 영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한 부분은 직접자신이 소유하는 장원으로 만들고 다른 부분은 소작농이나 농도에게 주어 경작시켰다. 이에 농민과 농도는 토지를 분배받았으며 이 때문에 그 경작지를 ‘분여지’(分與地)라고 불리웠고 이러한 영주가 소유하고 있는 장원도 농민이 경작하는 소규모 경제도 모두 자급 자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봉건영주의 농장에서는 영주와 그 가족, 그리고 하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생산되었다.¹⁴⁾

봉건적 제도 하의 생산적 특징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자연경제의 특징이 띠고 있다. 농노제의 장원은 고립되어 있었으며 자급자족하는 단일체로 외부와의 연결이 매우 적었다. 즉 농민의 경제도 자연스럽게 자연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생산도구를 소유하고 있는 영주는 경제적인 것과 인격적인 형태에까지 농민을 예속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고대 노예제도보다는 약간의 자신의 소유물을 가질 수 있었던 중세의 농노나 소작농의 신분에서는 잉여생산물의 소유를 얻음과 동시에 영주의 장원에서 봉사해야 했던 잉여노동의 부분도 제공해야 했다.¹⁵⁾

B. 중세도시와 상공업의 발달

10세기 이후 중세 시대의 근본적인 사회, 경제체제인 봉건제도와 장원제도의 틀이 잡히고 이 민족의 침략도 중단되어 사회가 안정되어 인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말을 이용한 심경법(深耕法) 등으로 농업기술이 발달하였으며

14) Ibid., p.188.

15) Ibid., p.185-193.

국왕과 영주들의 지원으로 습지와 황무지, 삼림이 개관되어 농경지가 늘어나게 되자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영주들을 위한 장인들의 생산물도 필요양을 초과한 여분이 생겨, 장인들은 점차 한 곳에 모여 살게 되었으며, 상인도 모여들어 중세 도시(中世都市)가 성립되었다.¹⁶⁾

중세도시의 성격은 장원제를 통한 노예문화의 슬픈 유산이었던 노동의 수치감은 점차 사라지고 전쟁터에서의 도시조합인들의 혼한 용맹성은 사냥과 전쟁이외의 모든 형태의 육체적 고통을 경멸하던 봉건귀족들의 선입관을 혼란시켰다. 노예라는 하층계급이 없이 평등하게 나란히 일하는 자유시민이 대다수의 구성원임을 자랑할 수 있었던 도시라는 것은 도시역사상 새로운 사실이었다.¹⁷⁾ 이러한 배경속의 중세도시는 오늘날의 현대도시와의 차이점은 단순히 상공업의 상점이나, 기업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조직과 그 공동조직 속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독특하다. 즉 중세도시에서는 실제적인 산업조직은 작업장에서 대가와 도제,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단체였으니, 사회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조합은 자조적 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고 오래된 공제조직이었고 활동적인 단체였으며 교육기관이었다. ¹⁸⁾

중세 도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인구 5천명 정도의 대부분의 도시는 국지적인 지방 거래를 주축으로 발달한 것이고, 인구 2만 명을 넘는 대도시는 국제적인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한 곳이었다. 또한 중세 도시의 주민은 크게 상인과 수공업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대개는 농촌 지역에서 충원되었고, 기사나 부농의 자식 또는 장원에서 도망친 나온 농노로 구성되었

16) 강정식, 『세계문화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4), p.279.

17) 김영기, 『역사속의 도시』 (서울 :명보문화사, 1993), p.266.

18) Ibid., p.266.

다.19)

대부분의 도시가 12세기 중엽까지는 영주가 도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특허장을 얻어냈다. 도시는 시장과 시참사회(市參事會)로 구성되는 시행정부를 갖추었는데. 도시 행정의 주된 발언권은 대상인이나 금융업자에 있었다. 중세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의 획득에 있어 앞장선 것은 상인 조합이었으며 자치권 획득 후에 도시 행정에 있어서의 그들의 발언권은 강하였다.20)

10세기 말에 이르러 이민족의 침략도 사라지고 농업을 통한 생산력이 증가되어 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적극적인 대외적인 교역이 전개되었다. 이것이 곧 상공업의 부활로서 중단되었던 지중해 무역이 다시 재개되었으며 또한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원격지 무역이 활발해져 동부 지중해 지역과 이탈리아 사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대서양 연안 사이, 북부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영국 사이, 그리고 북부 발트해 연안과 흑해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에서 각각 활발한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다. 21)

중세 도시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상공업에 있었다는 것은 사회, 경제사상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의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함으로써 봉건체제가 몰락하고 중세사가 막을 내리는 근대로의 역사발전을 이루었던 주체가 되었다. 22)

이와 같은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조합(guild)이었다. 상인조합은 도시의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는 일반적인 실체였으니, 판매조건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바가지요금에서 보호하고 정직한 직공들을 불공정한 경쟁에서 보호했으며 도시상인들이 외부의 영향으로 시장

19) 강정식, op. cit., p.279.

20) Ibid., p.280.

21) Ibid., p.282.

22) 박경민, 『한권으로 읽는 세상과 세계사』 (서울 :출판의바다, 1999), p.298-299.

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 반면에 직공조합은 생산을 규제하고 훌륭한 직공정신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뭉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대가들의 결사체였다. 23)

23) 김영기, *op. cit.*, p.265-266.

Ⅲ. 칼빈의 신학사상에 나타난 경제관 및 칼빈 시대의 배경

A. 칼빈의 신학사상에 나타난 경제관

칼빈의 경제관을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학적 사상에 대한 연구에 있다. 대부분의 개혁주의 사상가들과 비슷하게 칼빈도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여기면서 일상적인 양식의 공급에 의해서 그의 은총을 나타내신다고 보았다.²⁴⁾

부와 빈곤(가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재물을 인간의 권한 안에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재물로써 자신의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물질에는 공리주의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세속적인 부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천국의 부요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세속적인 번영과 선과의 사이에는 어떤 형편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하였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에 대한 칼빈의 사상은 술취함과, 자기 자랑, 그리고 만족을 모르는 삶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극빈자에 대한 무관심과 구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²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이어야 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⁷⁾

24) 이태연, 『칼빈의 개혁사상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92), p.144.

25) Ibid., p.144.

26) John Calvin, 『칼빈성경주석 공관복음2』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p.571.

27) John Calvin, 칼빈주석편찬위원회, 『칼빈성경주석 공관복음 2』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pp.184-193. 칼빈은 마태복음 19 : 23절 주석을 통하여 “부자”의 위치에 있는 자의 “탐욕”에 대한 경고와 자신을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권고한다.

부의 축적에 있어서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탐욕을 만족시키거나 방탕 생활에 낭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곤란을 나누며, 우리의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곤궁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²⁸⁾ 다시 말해서 만일 부자라면 그로 하여금 온 땅을 소유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권위가 있는 자는 가난한자를 멸시하지 말고 보살피 주고 동정을 베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신학사상에 의하면 부유한 자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기에 전력하며 자만이나 거만하지 않으며 언제나 겸손할 때 그것은 매우 훌륭한 증거가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몇몇의 종교개혁자중(에²⁹⁾는 그와는 좀 다른 사고를 지닌 자들이 있었다.

칼빈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무엇이나 인내함으로 받는다면, 그가 아무리 고난 당하고 그의 상태가 아무리 힘이 든다 해도, 그것은 선하고 유익한 시련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⁰⁾

칼빈신학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관중에 또 하나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

28) John Calvin, 김종흡 외 공역. 『기독교강요 상권』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II*),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p.575-576.

29) 이은선, “멜랑히톤의 *Loci Communes* 초판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신학지평』 논집 제16집(2003), pp.136-139. 멜랑히톤은 루터에 영향을 주고 받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는 이 초판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속에 하나님의 사랑(자비)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님의 믿음에 의하면 우리는 선과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칼빈은 믿음 속에서도 개인이 지켜야할 부분을 더욱 선명히 해놓고 있다. 여기에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30) Samuel Dunn, 김득용 역. 『요한칼빈의 신학진수』 (서울 :성광문화사, 1992), p.262-264.

에서 물질의 기능이 재정립되는 것같이 국가는 부분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교회에 있어서의 질서가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경제생활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함을 의미한다.³¹⁾ 국가나, 그것을 통치하는 관리들의 대한 다음과 같은 사상은 칼빈의 사상을 더욱 알기 쉽게 한다.

“관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며 신적권위를 부여받으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행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지닌”³²⁾ 자들이라고 한다. 또한 국가의 관리들의 본연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 보호, 선함, 자선 및 공의의 이미지를 자신들을 통해 나타내기 위하여 주의와 진지함과 근면을 다해야 할 것이다.”³³⁾

국가가 치안을 유지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공익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간섭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생산자와 소비자 중 어느 한편의 입장을 옹호해서는 안되고 교역과 부의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 되도록 감독함으로써 이러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좀더 세부적인 입장에서는 교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량형의 단위, 화폐구조 등에도 세심하게 조율과 적절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의 안전한 보장뿐만 아니라 재산권이 공공의 유익

31) 이태언, op. cit., p.147.

32)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pp.246.

33) Ibid., pp.249.

34) 이태언, op. cit., p.147-148.

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공공의 복리를 지향하는 실용주의자였다. 이런 측면에서 건전한 소비생활과 세금의 징수 역시 국민들의 공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라고 여겼다. 35)

칼빈의 신학사상에 나타난 경제개념은 위와 같은 부와 빈곤,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다.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경제적인 용어들 속에서 또한 목회자로서의 그의 삶 속에서 투영되었던 사회참여의 실생활에서도 복합적으로 묻어난다.36)

B. 사회, 경제적인 배경

칼빈의 경제사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이 활동했던 전, 후의 사회, 경제사적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 당시 유럽사회는 중세시기의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농업 중심의 장원제 사회에서 상공업 중심의 도시사회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던 농민계층의 운동이 빈번하던 시기였다. 농업중심의 장원제 사회에서는 영주 등 극소수의 특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생활을 영위했으나 도시가 발흥하고 농민들이 도시에 왕래하게 되자 도시의 상공인들에 비해 자신들의 빈곤한 생활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 한편 상공업의 발달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제공했으며 이런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봉건 영주들은 농민들에게 독점과, 강제 부역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수입을 유지하

35) Ibid., p.148.

36) 칼빈의 경제관이나 그에 따르는 사상은 그의 실제적인 삶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며 또한 신학사상 안에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즉 실제적인 그의 목회자로서의 삶 속에서도 경제적인 관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관점 또한 그의 신학적인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해석이 더 타당하다. 실제 경제적인 용어나 개념에 대한 신학적인 사상과 해석 칼빈의 기독교강요, 주석, 설교, 등을 참고하라

려고 하였다.³⁷⁾

중세말의 인구 변동이 농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세말에 인구가 증가하자 수도회들과 제후들은 개간사업에 나섰다. 그들은 개간사업에 농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신분상의 자유, 임의계약에 의한 토지 임대, 생산물이나 화폐에 의한 지대 납부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자 장원의 농민들이 장원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영주들은 이를 막기 위해 농민들에게 신분상의 자유를 주고 생산물이나 화폐로 지대를 납부하게 하는 등 농민들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증가하던 인구가 흑사병의 전염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자 상황이 역전되었다.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노동력의 부족은 노임의 상승을 초래했고 이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영주들의 공유지 독점과 강제부역으로 인해서 이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은 집단적 운동으로 신분적 자유와 경제적 여유를 얻기 위해 농민저항 운동이 일으켰다.³⁸⁾

칼빈이 주로 활동한 스위스 제네바 시는 14세기 이후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업과 교통, 무역 등의 주요 거점 지역이었다. 하지만 15세기에는 유럽인들의 신세계의 항로 개척으로 인해 전 유럽의 교역과 상업조건이 변화되면서 제네바의 발전도 정체되었다.

16세기의 유럽은 하나의 전환기 시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물물교환 형태가 지배적 상거래 방식이었으나, 새로운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새로운 세계의 발견은 결과적으로 유럽의 엄청난 양의 금을 제공해 주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산업이 일어나고 교역이 활발해졌다.³⁹⁾

37) 이양호, op. cit., p.260.

38) Ibid., p.261.

39) Ibid., p.51.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근거한 유럽 세계경제가 등장한 것은 16세기의 일이었다. 지역적으로는 북부 유럽과 그리스도교권의 지중해뿐만 아니라 중부 유럽 및 발트 해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유럽 세계경제는 또한 아메리카 대륙의 몇몇 지역들 -페루, 칠레, 브라질, -즉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부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의 유럽의 인구증가는 유럽의 근대 초기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하나의 근본적인 요인이었다.⁴⁰⁾ 이러한 여러 요인의 결과로 대규모의 자본주의적인 노동분업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16세기의 유럽의 경제적인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⁴¹⁾

40) Immanuel Wallerstein, 나중일 외 공역. 『근대세계체제 I: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The Modern World 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서울: 도서출판 까치글방, 1999), pp.109-115.

41) Ibid., p.112-127.

IV. 칼빈의 사회, 정치적인 참여

A. 집사직

칼빈이 1541년 제네바 교회를 위해 작성한 교회법규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의 교회의 통치를 위해 제정한 네 직임이 있다. 첫째는 목사요 그 다음은 교사요, 그 다음은 장로요, 넷째는 집사이다.”⁴²⁾

집사(Deacon)라는 뜻의 의미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특정한 직무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섬기는 일”(ministry) 이라고 보통 번역되어 있다. ⁴³⁾ 이 사실 집사라는 직분이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은 빌립보서 1:1에서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집사직의 완전하고 명료한 봉사자로서의 집사의 기원을 찾기란 부족하다. 하지만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의 정황을 예측한다면 집사들의 직임은 알 수가 있다.⁴⁴⁾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로마서 12장 7-8절에 근거하여 이 네 직임을 추론해 내고 있다. 직임자로서의 사역은 권세, 치료의 은사, 해석, 통치,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열거한다. 또한 이 일 중에서 일시적인 일과 영구적인 일을 나누었는데 다스리는 과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이에 영구적

42) 이양호, op. cit., pp.182.

43) John Macpherson, 이종전 역.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Presbyterianism*), (인천: 아벨서원, 1998), p.134.

44) Ibid., pp.135. “봉사” 또는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ministry”은 직무를 맡기는 자로 번역할 수 있다.(N.I.V. 성경) 라틴어 어원은 명사형태인 “ministerium” 으로 봉사: 봉사의 직무, 집무, 집무자, 봉사자로 번역되고 있다. 즉 집사라는 어원적 의미가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카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연구소 편찬, 『라틴-한글사전』 (서울: 카톨릭대학교출판부, 2001), pp.527.

인 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직임에 대해서도 영구적인 직임과 일시적인 직임을 구분하여 두 직임을 영구적인 직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장로와 집사직이다.⁴⁵⁾

칼빈의 집사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 고대교회에서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선뿐만 아니라 재산과 임대료와 부조금도 받고, 분배하며 물건을 보존하는 직무를 위임받는 계급과 병자들을 돌보고 간호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관리하는 직무를 위임받는 계급이다....” ⁴⁶⁾

위와 같이 칼빈은 집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집사의 직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돕는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사회 속에서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와 직무라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⁴⁷⁾

제네바시의 칼빈에게 있어서는 집사직은 돈을 다루고 , 구빈원을 정돈하고 감독하며,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편제되었다. 비록 목사들이 집사들의 일에 관해 묻고 구빈원에서 사람들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가

45) Ibid., pp.183-184.

46) W. Fred Graham, 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pp.144.

47) 칼빈은 집사제도의 성경적 근거를 말하고 있다.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그 외의 사역들-고아와 과부를 돕고, 재정관리 등등의 사역들-은 집사를 세워 교회를 일들을 효과적으로 나누어서 동역하기를 원했다. 집사의 역할이 바로 실제적인 구제에 일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참여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생활속에 구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집사직의 성경적 기원을 통해서 자세히 알수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칼빈주석 사도행전 6: 1-7를 참고하라

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빈원을 분기마다 방문한다고 할지라도 집사직의 자격은 변함이 없었다. 또한 당시의 집사들은 내 개의 수입원이 있었다. 들어온 수입과 예산을 가지고 좋은 제도를 실현해 나갔다. 잘 조직된 제네바의 자선은 집사들의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목사들의 관심에 의해 확실하게 되었다. 확실히 피난민들로 넘쳐나는 도시에서는 그러한 집사라는 제도를 필요를 했으며, 칼빈의 적극적인 사상과 도입으로 그 제도를 복원해 놓았다. 48)

B. 구제기관들과 피난민들

존 칼빈이 사회의 실생활의 사회, 정치적인 참여의 모습은 당시 피난민과 빈곤한자들을 위한 구제기관들의 대한 관심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9) 이러한 칼빈의 사회적인 관심은 그의 사상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는 요한 일서 3:17의 주석을 통해 그의 생각을 잘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그 사랑을 실지로 보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첫째 명제로 삼자. 둘째는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힘이 미치는 정도까지 그의 형제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을 행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셋째는 모든 사람이 필수품을 누릴 수 있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먹을 것과 마실 것 또는 다른 것들이 궁핍한데 우리는 풍부히 누리고 있다면 그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참된 동정심이 동반되지 않고는 어떤 친절한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48) Ibid., p.148-149.

49) 칼빈의 사회, 정치적인 참여의 모습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살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실생활의 중요한 직위나, 기관 등등의 모습에서 제도적, 법률적 까지 연결된 부문만을 인식하는 사회참여의 모습이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형제의 불행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감동이 없으면서도 분명히 관대한 손길을 베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불행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참된 동정심이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⁵⁰⁾

위에 언급된 대로 칼빈은 이러한 사상을 좀더 구체화하고 있다. 즉 율법에서 언급되어지는 고아와 과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웃”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고아나 과부처럼 동일한 혈통이나,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국인”과 “이방 나그네”를 이웃으로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 전 인류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바꾸어 말하면 사회 속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으로 많은 자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⁵¹⁾

집사들의 사역은 구빈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제네바 시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구빈원, 병자들을 위한 구빈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 등등의 몇 개의 구빈원이 존재하였는데 이런 구빈원에 대한 칼빈의 관심은 옛날 기록 문서들에 의하여 발견된다. 1544년 8월 29일에 현직의 구빈원 원장의 실수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했던 인물이 바로 칼빈이었다.

“목사 칼빈은 성령 구빈원의 원장인 쥐스탱(Justin)이 도둑이며, 외국인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노력했고, 더군다나 가난한 병자에게 배급된 빵을 팔아먹고 있으며, 그들에게서 수당을 가로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을 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 보고들을 믿고 있다. 그래서 이

50) John H. Leith,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서울 : 한국장로출판사, 1996), pp.203.

51) Joseph Haroutunian, 이종태 역. 『칼빈주석의 정수』 (*Calvin: Commentaries*),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413-415.

사실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쥐스탱은 징계에 회부되어 면직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되었다(쥐스탱은 그 날 면직되었다).”⁵²⁾

칼빈은 구빈원에다 의류 제조업이나 퍼스티언(fustion)천 직물업을 세워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의해 임명된 다섯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 임명의 목적은 소중한 시간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네바 시 정부가 수석 목사 칼빈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했으며 교회의 집사들에 의해 감독되는 새로운 산업을 설립했다. 여기에서 교회와 국가가 산업으로 거룩한 동맹적인 역할을 감당했다.⁵³⁾

구빈원 원장도 역시 네 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일은 생활이 충분히 보장되는 봉급을 받는 전 시간제 직업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마다 그는 다른 세 명의 집사들인 경리계들에게 구빈원의 현황을 보고 해야 했으며 1553년 5월의 새로운 포고령을 통해 이 구빈원직지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여러 직업들에 숙달되어 있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모든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환자들을 시 예산으로 수용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교육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 삼밭, 밀밭 등을 감독해야 했고, 많은 소나 말, 돼지 등의 가축들을 돌보며 구빈원 소속 직물업과 도기업의 감독관도 되어야 했다. ⁵⁴⁾

피난민들은 대부분 프랑스의 종교적인 박해로부터 이민하여 온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다.⁵⁵⁾ 1542-1561년까지의 제네바 시의 이러한 인

52) 프레드 그래함, op. cit., pp.151-152.

53) Ibid., p.152.

54) Ibid., p.153.

55) Ronald S. Wallace,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 개혁사상』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190-226.

구 증가가 거의 전부 제네바 시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⁵⁵⁴ 1554년 11월 26일에 다음과 같은 시의회의 제출된 의안은 피난민의 대한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날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쁜 생활이나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의 과중한 짐까지 떠맡고 있다. 선인들이 대접받을 수 있고 악인들이 배척될 수 있도록 이들에 관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⁵⁶⁾

대부분의 많은 피난민들이 지극히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했으며 자녀들의 과중한 짐까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삶이 힘든 삶이었다는 알 수 있다. 분명 그 시기의 시 정부는 곤란했을지라도 당시 집사들과 구빈원은 아주 바쁜 일들을 수행하였음이 분명하다. ⁵⁷⁾

C. 사치금지법

1558년에 시의회에 의해 제정된 “사치금지법”은 빈곤에 있어서 대안의 한 가지로 출발한 좋은 취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논란이 되는 일이었다. 즉 빈부의 격차를 감소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과도한 과소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출발한다. 이것은 당시 종교법원의 대표이자 목사인 니콜라스 데 갈라르 가 이와 같은 법의 의뢰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을 때 말한 다음과 그의 증언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56) 프래드 그래함, op. cit., pp.156.

57) Ibid., p.156-157.

“종교법원을 대표하여 니콜라스 데 갈라르는 우리 가운데에서 사치와 무절제가 감소하지 않고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교인들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창피거리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무절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분개한다는 것을 진정했다.”⁵⁸⁾

이러한 상정된 법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네바 시의회의 결정도 “사치금지법”에 대한 배경적인 의미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공적인 선포가 되도록 할 것이지만 그 법들을 성안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많은 악을 발생시키고 탐욕스러운 교만을 마음에 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빈곤, 높은 생활비 및 많은 파멸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치 행위들을 근절시키는 어떤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하여 먼저 목사들과 협의가 되도록 지시했다. 더구나 그러한 행동 원리는 하나님을 심히 화나시게 만든다.”⁵⁹⁾

이 법은 다른 법안과 같이 가난한자나 부유한 자나 공정하게 시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일반시민이나 시의회의 의원에 이르기까지도 적용되었다. 즉 사치금지법이 한 특정계층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후대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치금지법”은 칼빈에게 있어서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재로 되어 왔는데, 그것은 칼빈의 그 당시 16세기 제네바의 한 시민이며 사람이었던 것을 배제해 놓은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⁶⁰⁾ 즉 칼빈이 당시 있었던 사회의 배경 속에서 등장한 법률을 가지고 오늘날의 잣대로만 구성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집사제도와 그 직무 그리고 구제기관과 빈민들에 관한 칼

58) Ibid., pp.164.

59) Ibid., pp.164.

60) Ibid., p.166-170.

빈의 16세기의 제네바시 속의 개혁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모습은 그의 사회참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61)

61) 칼빈의 경제적인 측면을 배경으로 한 사회참여는 특히, 집사제도와 그 직무, 그리고 집사들의 실제적인 사역장소였던 구제기관들, 그리고 그 주된 대상중에 하나였던 피난민들에 있어서 더욱 실질적인 모습과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V. 칼빈의 경제사상

A.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판단은 칼빈의 시대에 와서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몇 세기 동안에 교회와 대부분의 권력자들 사이에서 성경말씀을 실제 관례적인 무역에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이자놀이를 금하였다.

칼빈은 고리대금업에 대한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었다. “고리대금업”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시대적인 배경과 16세기 상황과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즉 칼빈은 그 당시 제네바시 내에서도 이미 보편화된 빌려준 대금에 관한 이윤추구인 이자의 실제적인 것을 신학적으로 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⁶²⁾

하지만 그가 비록 성경해석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고리대금업”에 대한 것을 변호해 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분별한 적용은 아니다. 즉 보편 타당한 특별히 가난한자들에 대한 고리대금업에 관해서 공평하지 못한 의미로서 적절한 비판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⁶³⁾ 1547년 5월 17일에 칼빈의 의해 작성되고 통과된 시의회의 교회법령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도 고리대금이나 이익을 위해 5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건의 요건에 따라 원금의 몰수 내지는 임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다.”⁶⁴⁾

62) 로날드 S 윌레스, op.cit., p.126.

63) W. J. Bouwsma, 이양호, 박종숙 역. 『칼빈』 (Calvin), (서울: 나단출판사, 1993), p.468-469.

64) 프래드 그래함, op. cit., pp.178.

물론 이것은 그 법률대상이 대는 지역과 대상이 지방 교구민들이 대부분이 농민이었지만 이 법령 속의 내포한 의미는 적절한 한계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자에 대한 개념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이자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을 말해주고 있다.

- (1) 누구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 때 결코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
- (2) 누구든 돈을 가지고 빌려주기 위하여 자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3) 황금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든 일어나서는 안 된다.
- (4) 차용인은 최소한 대부인에게 빌린 돈만큼은 갚아야 한다.
- (5) 우리는 우리의 관습들을 세상의 불공평에 따른 합법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 (6)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한다.
- (7) 합법적인 것이 비그리스도교적이고 그리스도인에게 금지된 것일 수 있다.⁶⁵⁾

칼빈은 고리대금업의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이웃을 핍박과 압제, 착취하는 수단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경고하였다. 즉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정신이 돈을 빌려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업적인 정신을 넘어서고 지배해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꾸어 말하면 “고리대금업”이 사업상의 문제들에게만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지 빈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고

65) 프레드 그래함, op. cit., pp.135-136.

악랄한 착취의 대상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6)

세계경제사적인 입장에서 칼빈 이전까지의 전통적이고 획일화된 입장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토지에 의존하던 자연경제사회에서 상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즉 화폐경제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세계에 상업과 무역을 통한 이윤을 추구인 이자의 문제를 제시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는 유럽이 새로운 경제적인 자본주의적인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67)

고리대금업에 국한된 사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업과 무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전에 있는 많은 종교개혁가 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해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한 것이다. 68)

B. 노동

칼빈은 게으른 삶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근면과 성실성을 주장했으며 “노동”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성

66) John H. Leith, op. cit., p.208.

67) 이태연, op. cit., p.154.

68)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경제는 신대륙 발견에 따른 새 무역항로의 개통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진다. 예를 들어 금의 공급이 증가하고 화폐의 급속한 유통으로 인하여 통화의 팽창이 만연되는 시기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속에서 경제의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했지만 부정적인 요소인 빈민의 증가도 존재하고 있었다. 귀족을 대신하는 위치에까지 위상이 높아지는 상인들의 부정적인 생활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칼빈은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과 사회단위들 간의 건전한 통상을 통한 교류는 행복한 개인과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인간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탐욕과 범죄만이 가득한 지옥’으로 묘사할 정도로 상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로날드 S 월레스, op., cit, p.123-126.를 참조하라

경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라고 여겼다.⁶⁹⁾ 즉 칼빈에게 있어서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기만의 일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익과 이웃을 위해 일하는 개념의 “노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일한다. 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우리는 그것이 공익에 좋고 유익한지, 그의 이웃들이 그것에 의해 도움을 받는지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다만 전체 사회에 유익하고 이바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보여주는 직업들을 인정할 것이다.”⁷⁰⁾

노동에 임하는 바른 자세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구약성경 전도서 9:10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 하여 할지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신약성경을 통하여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11, 12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노동의 개념이 타율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⁷¹⁾

노동의 성경적인 개념은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온전한 노동을 통

69) 이양호, *op. cit.*, p.271.

70) *Ibid.*, pp.272.

71)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엠마오, 1993), p.146-148. 칼빈에게 있어서 노동의 개념은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어떤 측면에서는 “형벌”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 해주신 어떤 창조적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노동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삶 속에서 노동의 삶으로 인간의 삶을 제공하셨다는 것이다. 칼빈주석 창세기2장을 참고하라

해 하나님이 지시하는 목표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인간은 본래 노동을 하도록 창조되었으니 노동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을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업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72)우리는 직업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게 된다. 73)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노동과 그에 따르는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해놓고 있다. 또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과 그 노동할 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은 노동권의 대한 착취이라고 보면서 이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였다. 74)

C. 임금

칼빈에게 있어서 노동을 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임금”을 받지만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고 유효한 물질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임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약탈해서는 안되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용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므로 고

72) 이태언, op. cit., p.149.

73) 칼빈에게 있어서 “노동”의 개념은 단순히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의 연결점이 제시되고 있다. 즉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칼빈주석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대한 해석을 참고하라.

74) 이태언, op. cit., p.150.

용주는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도구이자 전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⁷⁵⁾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강한 어조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신들을 위해 노력과 땀과 피를 바친 가난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할 때... 그들이 당신들에 대해 하나님께 복수를 구한다면 당신들이 피할 수 있도록 누가 당신들의 변호자와 옹호자가 되겠다고 나서겠는가?”⁷⁶⁾

칼빈 당시의 제네바 시에는 물가상승과 주변 환경으로 인한 임금에 대한 여건이 그 다지 좋지 않았음을 1559년 3월에 있었던 그 시기의 제네바 의회의 포고령을 보면 알 수 있다.

“임금이 너무 비싸고 도도한 나머지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어서 노동자들에 관하여 시의회에서 논의를 했다.(물론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직공들이었지 농민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어는 누구도 석공들, 모자 제조공들 또한 기타 다른 기술자나 노동자들에게 일당 6수(sous)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여인들에게는 10카르테르(quarter)를 주되 식사를 제공할 때는 5카르테르를 주도록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노동자와 주인에게 다 같이 60수의 벌금을 물릴 것을 포고령을 작성하여 공표하는 바이다.”⁷⁷⁾

위와 같이 당시 제네바는 고용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종업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미달되는 금액을 지불하기도 했으며 임금을 둘러싸고 분쟁도 심하였는데 칼빈은 임금의 협상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집단계

75) Ibid., p.150.

76) 이양호, op. cit., pp.272-273.

77) 프래드 그래함. op. cit., pp.195.

약을 구성하기도 하였으며 법정에서 임금에 문제에 대하여 조정, 중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도 하였다. 즉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할 때 시의회의 역할로 중재해주도록 요청하였으며 노동자와 교사들의 급료를 인상해 주도록 시의회를 빈번하게 방문하고 시의회에 “가족부양법”을 표결에 부칠 때 칼빈은 국가와 시의회가 고아들을 돌보아 줄 것을 요청하고 시의회가 기업체의 고용인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급료를 지불하였는지 정기적인 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감독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하였다.⁷⁸⁾

D. 상업

위에서 언급했듯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상업 및 경제활동이 그 미치는 영향 속에서 장점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단점으로 간주되었다.⁷⁹⁾ 하지만 칼빈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되어지는 측면의 공리성과 복지성에 대한 아주 유용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매점, 매석에 대한 금지를 통해서 상업활동에 있어서 건전하지 못한 상업활동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 상공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이자를 받는 것을 허용한 것은 단순히 고리 대금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통화에 대한 증식성에

78) 이태언, *op. cit.*, p.151.

79) 루터에게 있어서 상공업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농업을 증가시키고 상업을 감소시키는 것이 훨씬 더 경건한 일”이며 무역회사들은 선한 양심이란 조금도 없는 탐욕과 악행의 밑빠진 독이고, 상인들은 사기꾼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루터는 “상업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아직도 경작할 땅이 많이 있는데 왜 상업을 하느냐고 물었다. 반면 칼빈에게 있어서 상공업은 하나님께서 정한 천부적 직업으로 보았으며 상인들의 매매활동이 건전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pp.266-267.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금의 통화와 증식에 대한 칼빈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돈은 돈을 낳지 않는다고 한 성 암브로스워 크리소스톰의 이론은 내 판단으로는 너무 피상적이다. 바다가 무엇을 낳는가? 땅이 무엇을 낳는가? 나는 집을 빌려주고 수입을 얻는다. 거기서 돈이 자라기 때문인가?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소유에서보다 상업에서 돈이 더 결실이 있지 않는가? 농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고 돈을 빌려주고 그 열매를 받는 것은 불법적이란 말인가?...상인들은 어떻게 이윤을 얻는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라고 말할 것이다. 확실히 돈을 금고 속에 넣어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동들도 알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자는 이 돈을 한가하게 간직하여 아무 소득도 얻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윤은 돈 자체로부터 오지 않으나, 그것이 유통됨으로써 온다.”⁸⁰⁾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상업은 단순히 경제개념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있어서 상업의 위치를 올려놓았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통하여 후대에 자본주의적인 경제사상적인 토대가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⁸¹⁾

80) 이양호, op. cit., pp.268.

81) 프레드 그래함, op. cit., p.289-292.

VI. 칼빈주의가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

A. 칼빈과 칼빈주의에 관계에 대한 규명

칼빈주의가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언급하고 규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칼빈과 칼빈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기술이다.

칼빈은 종교개혁시대에서 신학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⁸²⁾ 하지만 그것이 칼빈이 자신이 생존했던 시대의 자신의 신학사상을 통해서 영향을 주었는가? 아니면 칼빈 사후의 칼빈의 후계자들이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문제이다. 개혁과 정통주의인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칼빈의 사상을 살펴보면 칼빈이 주장했던 거 보다 균형을 잃고있는 점이 발견된다. 박용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그의 저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칼빈의 사상이 피터 마터 베르밍 글리(Peter Martyr Vermingli), 제롬 잔키(Jerome Zanchi), 데오도레 베자(Theodore Beza). 그리고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등을 거치면서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반응을 균형있게 고찰하였던 칼빈의 방법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칼빈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로부터 신학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지의 신비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후대 칼빈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출발하여 개별적인 항목으로 넘어가는 귀납법적인 방법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을 구원론에서 다루기보다 신론에서 다루어 예정론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잔키는 예정

82) 오덕교, 『장로교회사』 (서울: 합동신학교출판부, 1997), p.71-85. 사실 칼빈의 사회, 경제적이며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영향은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칼빈 그 자신이나 그의 제자들의 활동들을 통하여 스코틀랜드, 화란, 프랑스, 독일에 까지 그 영향을 주게 된다.

론의 근거가 “하나님의 예지”라고 보았다.”⁸³⁾

위와 같은 규명을 통해서 칼빈과 , 칼빈의 사상을 전수 받은 칼빈주의자들의 구분은 우리에게 좀더 쉽게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성을 좀더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는 것이다.

칼빈주의의 형성은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보다 분명하게 등장하게 된다.

첫째는 신조들의 채택과 신학저서의 출간이다.

칼빈 사후 개혁주의 전통을 담은 제2 헬베틱 신앙고백(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이 출간함에 따라 개혁주의의 신학적인 틀이 형성되었다. 또한 1549년에 만들어진 “취리히 합의서”와 함께 칼빈주의 색깔을 지니게 된다.⁸⁴⁾

둘째는 신학논쟁에 있다.

17세기 개혁과 정통주의의 핵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도르트 신조의 배경 속에서 칼빈주의대 알미니안 논쟁이 시작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칼빈주의 성격을 떠는 개혁과정통주의는 16세기의 위대한 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개신교 신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어진다.⁸⁵⁾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칼빈의 신학사상을 전수 받는 형태로 “칼

83)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1), pp.113. 박용규는 또한 예정론에 있어서 그의 제자 데오도르 베자는 제한 속죄를 정통칼빈주의 신앙으로 정착시켰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베자는 “예정론의 근거를 하나님의 지식, 의지, 능력”에 두었다고 보았다. 이것은 베자의 타락전 예정론 (supralapsarianism)을 체계화 시켰고 국가관에 있어서도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칼빈에 비해서 급진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다
cf. pp.113.

84) Ibid., pp.114. 사실 헬베틱 신앙고백의 가지는 의의는 예정론이나 영감론에서 “성경이 하나님에 의하여 전적으로 영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후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선행되는 역할을 하며 개혁과 정통주의에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 cf pp.114.

85) Ibid., pp.120-130.

빈주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⁸⁶⁾

B.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칼빈의 경제사상이 이제는 그가 활동했던 16세기의 제네바라는 도시를 넘어서서 영향을 주게되는데 그것은 “칼빈주의”를 형성하게 되고 그 영향아래에 가장 역사적으로 활발한 논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연관성일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독일의 종교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학과 자본주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4-5)이라는 논문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 중에서도 칼빈주의적 윤리가 자본주의에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직업 소명설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⁸⁷⁾ 계속하여 베버는 루터와 칼빈의 비교로 인하여 칼빈이 더욱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하는 근대주의에서의 직업관에 관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루터는 모든 직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의 경제형태의 전통에 머물러 버렸지만 칼빈은 루터의 직업소명을 넘어서서 전통주의적인 경제사상에서 근대적인 경제사상을 형성 할 만큼의 근대적인 직업 관념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⁸⁸⁾

86) 사실 칼빈과 “칼빈주의”는 전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문과 각주에서 서 언급했듯이 “칼빈”의 사상보다 더 강화되거나 혹은 온건한 형태를 지니는 칼빈주의도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칼빈사상이 칼빈주의 사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배경속에서 칼빈의 사상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칼빈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규정해도 좋을 듯 하다. Ibid., p.111-130. cf. 오덕교, op. cit., p.70-95.

87)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8), pp.79ff.

더 나아가 베버의 이론은 중세의 수도원과는 다른 형태의 칼빈주의적인 형태를 지닌 “노동”에 대한 금욕주의적에 대한 형식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쓸쓸한 벽지로 피해 들어간 그리스도교의 금욕주의는 수도원과 교회로부터 관계를 끊었던 세상을 지배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손이 닿지 않은 세상에서 일상적인 생활의 자발적인 성격을 자연히 떠났었다. 이제는 금욕주의가 생활의 시장 안으로 성큼 들어섰으며.....생활의 일상적인 과정을 바로 관통하고 금욕주의를 세상 속의 생활로 형성하기 위한 일을 착수했다.”⁸⁹⁾

베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칼빈주의 삶의 모델이었던 사람은 여러 사람들 중에 단연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를 예를 들고 있다. 백스터는 시간의 낭비를 시간 낭비를 죄로 인식하고 고된 노동을 열정적으로 찬성하는 자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그러한 백스터의 그리스도인의 훈령집(Christian Directory)에서의 베버의 결정적인 인용은 다음과 같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다른 방법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다면 (당신의 영혼이나 어떤 다른 영혼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보다 이익이 적은 방법을 택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소명의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말살하는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수납하여 그가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를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은 육체와 죄를 위해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부자가 되는 수고를 할 수 있다.”⁹⁰⁾

88) Ibid., pp.98ff.

89) 프레드 그래함, op. cit., pp.292.

90) Ibid., pp.293. 이와 같이 프레드 그래함은 막스의 베버가 인용한 저서를 재인용하면서 칼빈주의자의 전형이었던 리차드 백스터가 칼빈주의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칼빈주의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위와 같은 베버의 주장에 깔려 있는 두 가지 근거는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칼빈의 신학사상의 핵심교리 중에 하나인 “예정론”에 대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택한 자들의 삶은 그것에 대한 열매와 근거를 생활 속의 삶에서 나타내어야 하며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생활과 활동을 통한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택한 자의 삶이라는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신교 교리 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예정교리”를 통하여 노동을 중요시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땅의 삶을 칼빈주의를 중세시대의 배타적인 금욕주의가 아닌 삶 속에서 들어와 있는 구체화되고 행동화된 더 나아가 종교화된 금욕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아주 지독한 일꾼이나 아니면 아주 검약하는 자로 나타나 이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저축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자본주의에 기여하는 일로 상승되어 진다는 것이다.⁹¹⁾

위와 같은 베버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지지와 반대하는 의견은 분분하다. 몇 가지 의견을 기술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트윌취는 『기독교회와 집단들의 사회적 교훈들』(Die Sozialen 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1912)에서 베버의 주장을 받아들여 칼빈주의 직업관과 예정의 확증을 위한 금욕적 노동, 그리고 이와 결부되어 나태를 금기시하고 소득 획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가르침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공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윌취는 칼빈주의에서는 노동과 이익이 순전히 개인적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으며 자본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본을 증가시켜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액수만 쓰고 나머지는 전체 유익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

91) 이종성, op. cit., p.186-188.

교 사회주의적 요소를 품고 있었으면 그래서 후대에 기독교사회주의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⁹²⁾

프레드 그래함은 베버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리차드 백스터만이 진정한 칼빈주의자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도 베버가 주장하는 칼빈주의를 지향하는 칼빈주의자로서의 자본주의에 영향을 주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스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소명에 의한 삶 속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고민이전에 하나님과 공익을 위한 봉사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그 다음에 소명이 자신의 영혼에 유익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다. 사실 베버가 주장하는 “칼빈주의”,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면 그 주의를 형성시켰던 칼빈은 자본주의의 핵심사상에 거슬리는 자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호하게 자유시장에 반대했으며, 강력한 정부의 통제에 찬성하고 개인의 지나친 권한이 오용에 있어서 개인의 과도한 권한보다는 공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을 본다면 칼빈주의를 형성하고 자본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베버를 포함하는 많은 비평가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⁹³⁾

그래함 이후에는 리이드(W. Stanford Reid)는 “존 칼빈은 자본주의 아버지인가?” 라는 논문에서 베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예정론”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으며 그것은 칼빈의 진정한 연구를 통하여 나온 그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의 영향에만 집착한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⁹⁴⁾

92) 이양호, op. cit., pp.256.

93) 프레드 그래함, op. cit., pp.299. 프레드 그래함은 사실상 칼빈의 사상은 16세기 중부유럽에 조그만 복지국가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4) W. Stanford Reid, “John Calvin: the Father of Capitalism,?” *Themelios*, Vol. VIII, No. 2(January, 1983), pp. 19ff.

비엘러는 베버의 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베버가 언급한 칼빈주의와 칼빈의 사상을 구분하면서 칼빈주의의 사상과 칼빈의 사상은 차이점을 인정해야 하고 칼빈의 경제사상은 “각자로부터 그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칼빈의 경제사상은 인격주의적인 사회주의로 명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⁹⁵⁾

그렇다면 칼빈과 칼빈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는 칼빈주의로 명명되는 것은 자본주의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칼빈의 삶 속에 나타난 그의 모습과 사상 특별히 경제관은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로날드 윌레스는 비록 칼빈의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과 무역의 성장에 대한 찬성과 “고리대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주었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인정하였다.⁹⁶⁾

위에서 언급했던 칼빈과 그의 사상 속에서 도출된 칼빈주의의 영향에 대한 모습은 분명 많은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칼빈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제공했던 상업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직업소명의식, 노동에 대한 중요성, 부와 빈곤에 대한 개념, 이윤과 이자 등등의 요소를 미루어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18세기 자본주의인가 19세기인가 아니면 20세기이후 오늘날까지의 자본주의인가 라는 점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95) 이양호, op. cit., pp.256.

96) 로날드 윌레스, op. cit., p.135-137. 로날드 윌레스는 비록 자본주의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막스 베버나 이에 비슷한 논조로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측면에서의 “자본주의 정신”과는 다르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그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정신은 오히려 중세적 사고에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현대의 자본주의는 치열한 경쟁 사회의 모습인데 이러한 서로간의 경쟁과 다툼이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를 칼빈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사회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cf. pp.135-136.

왜냐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초기의 자본주의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⁹⁷⁾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한 결과에 이론적인 측면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부스마의 주장처럼 사유재산을 옹호하고 상업과 이자를 인정하고 빈부 격차를 인정하고 노동과 검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서는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지닌 자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우위성을 중시하고 인간은 이웃을 돕고 살피는 청지기로 임명되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⁹⁸⁾ 하지만 이것은 칼빈을 칼빈시대에 사는 자로서의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다. 즉 16세기의 맥락에서 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과 시각, 사상으로 그를 보아서는 그의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것이다.⁹⁹⁾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별히 그의 경제사상속에서 그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의 사회적인 참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 있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의 의해 형성된 칼빈주의가 자본주의에 영향을 주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또 그를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자로 기

97) 이태연, op. cit., p.162-163. 오늘날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초기 자본주의에 일어났던 문제들과 형태, 조직과는 사뭇 다르다 예를 들어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경제학적인 이론이 실질적으로 “수정자본주의” 형태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즉 노동시간, 임금, 무제한적인 자유, 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이나 간섭 내지는 통제 등이 그러한 이유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도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즉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자유무역주의”로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간의 협정과 교류를 통한 무한경쟁의 “자유무역주의” 형태로 회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8) 이양호, op. cit., pp.258.

99) Richard AMuller, 이은선 역. 『16세기 맥락에서 본 진정한 칼뱅신학』 (*The Unaccommodated Calvin*). (성남 : 나눔과 섬김, 2003), p.9-13. 물론 리처드 멀러가 주장하는 사상은 신학 속에서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서론에서 주장하는 논지의 16세기 맥락 속에서 칼빈에 대한 이해는 좀더 칼빈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독교 사회주의적인 혹은 기독교인격주의적인 사회주의자로 보던 간에 그가 16세기의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VII. 결론

칼빈의 경제사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사회참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사회참여의 모습은 신학적인 사상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의 제네바라는 도시에서의 삶을 통해서 제시받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신학적인 사조들이 실천적인 개념보다는 신학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특별히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신학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모습의 당위성을 칼빈의 당시의 신학과 그에 따르는 실천적인 삶의 참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탁자 위에서의 진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뿐만 아니라 그 성찰된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개하여 나갔다는 것이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는 그의 사상을 신념으로만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결실되어지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해석의 실천적인 장소인 우리의 삶을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다 실천적인 ,참여적인 적극성을 띠고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신학적인 해석과 그 해석에 따르는 삶을 연결하는데 이르기까지의 수고의 사역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참여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다.

칼빈의 경제사상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신학적 해석이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리대금업”, “임금”, “노동”에 대한 이해는 16세기의 사회를 뛰어 넘어 자본주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기의 신학적인 토대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직업에 대한 소명과 자본주의 기본경제개념인 이윤, 이자 등의 경제개념적 용어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비단 경제적인 개념만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분야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많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와 제반의 여러 야기되는 중요 사건, 일 현상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경해석의 문제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이다. 성경말씀에 해석자, 신학자를 넘어서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해석한 말씀을 시도해 보려는 개혁적인 목회자였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성경말씀을 연구하는데 그치고 해석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라고 한다면 그 기초가 되는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이 시대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소극적인 형태로 접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안목의 함양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현세적인 것들에 치우쳐 사는 것만도 아니다. 과거를 반성하여 현재를 살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이에 따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고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고정화된 생각과 절대화된 가치관이 상실되어 버린 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처하는 것은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

대의 요구되는 필수적인 삶인 것이다.

16세기의 신학자요 , 목회자이며, 삶의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개혁가였던 존 칼빈의 경제사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게 성찰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자의 삶을 제시해 주고 있는 중요 모델인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김영기. 『역사속의 도시』. 서울 : 명보문화사, 1993.

강정식. 『세계문화사』. 서울 : 형설출판사, 1994.

박경민. 『한권으로 읽는 세상과 세계사』. 서울 : 출판의바다, 1999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2001.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 엠마오, 1993.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97.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이태연. 『칼빈의 개혁사상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92.

오덕교. 『장로교회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정성현. 『교양경제사』. 서울: 도서출판청년사, 1991.

심창섭, 채천석. 『중세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8.

2. 번역서

Bouwsma, W J. 이양호, 박종숙 역. 『칼빈』 (*Calvin*). 서울: 나단출판사, 1993.

Calvin, John.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기독교강요-상』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II*).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Dunn, Samuel. 김득용 역. 『요한칼빈의 신학진수』 (*The Best John Calvin*). 서울: 성광문화사, 1992.

Graham, W. Frid. 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Gonzalez, Justo. L.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The Story of Christianity*). 서울 : 은성출판사, 1995.

Haroutunian, Joseph. 이종태 역. 『칼빈주석의 정수』 (*Calvin: Commentaries*).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Leith, J. H.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서울 : 한국장로출판사, 1996.

Macpherson, John. 이종전 역.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Presbyterianism*). 인천: 아벨서원, 1998.

Muller, Richard A. 이은선 역. 『16세기 맥락에서 본 진정한 칼뱅신학』 (*The Unaccommodated Calvin*). 성남 : 나눔과 섬김, 2003.

Wallace, Ronald S.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 개혁사상』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Wallerstein, Immanuel. 나종일 역. 『근대세계체제1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The Modern World 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in the Sixteenth Century*). 서울 : 까치글방, 1999.

3. 국외서적

Bieler, Andre.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trans. Paul T. Fuhrman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Reid, W. Stanford. "John Calvin: the Father of Capitalism.?" *Themelios*,
Vol. VIII, 1983.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8,

4. 논문

이은선. 칼빈의 사회, 경제사상 연구. 총신대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5).

이은선. "멜랑히톤의 *Loci Communes* 초판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신학지평』
논집 제16집(2003).

5. 주석, 사전류, 성경

Calvin, John. 칼빈주석편찬위원회, 『칼빈성경주석 공관복음 1』. 서울: 성
서교재간행사, 1982.

Calvin, John. 칼빈주석편찬위원회, 『칼빈성경주석 공관복음 2』.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카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연구소 편찬, 『라틴-한글사전』.서울: 카톨릭대학교출판부
2001.

N. I. V. 성경